

산업통상부 업무보고

2026. 08. 04.

목 차

I. 상반기 주요 성과	1
II.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	3
III. 핵심 추진과제	4
1. 대도약과 초성장 실현	4
2. 지방주도 성장 + 경제영토 확장	8
3. 국가정상화 과제	10

I. 상반기 주요 성과

1 국민생활·산업생산 차질없이 중동전쟁 위기 극복

- 원유·나프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한 민생 충격 최소화
 - 전략경제협력특사, 대체물량 차액지원 등 원유·나프타 물량확보 총력
 - * 7~8월 원유 전년 평균 대비 100% 이상 확보, 7월 나프타도 100% 수준 확보
 - 비축유 SWAP·수출제한·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등 수급균형 유지
 -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시행(3.13.), 시장교란 불법행위·가짜뉴스 엄단

2 보건·의료·핵심산업·민생 등 석유화학 후방산업 공급망 안정화

- 국민생활 필수품목 우선공급 지원, 매점매석 금지 조치
- 석화제품 공급망 TF(산업부 40여명) 및 50여개 품목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의료용품·핵심산업·농업용 제품 등 차질없이 공급

☞ 추후 위기발생에 대비, 다변화 등 근본적 자원안보 확립 필요

2 적극적 통상대응으로 수출 1조불 및 세계 5강 도약 기반 마련

-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, 상반기 수출 역대 최대 및 외국인투자 증가*
 - * 【수출】^(25.1)3,347억불→^(26.1)4,963억불(+48.3%), 【외투】^(25.1)131억불→^(26.1)142.8억불(+9.1%)
 - 반도체^{+163%} 외 뷰티^{+27%}, 패션^{+13%}, 푸드^{+9%} 등 소비재 수출도 약진
- EU 철강 협상에서 다른 국가 대비 유리한 쿼터 확보*(207.3만~380.9만톤)
 - * 쿼터 감소폭: 전체 쿼터 △46%, 북 △19.7%, 튀 △28.4%, 인도 △30.2%, 영 △66.6%, 스위스 △67.5% 등
- 전략적 對美 투자를 위한 「대미투자특별법」 제정, 투자공사 출범
 - * 「韓-美 조선헌력센터」(26.下) 개소, 對美 프로젝트(MASGA, 원전 등) 협의

☞ 글로벌 불확실성 상시화 → 중견국 연대, 전략적 견제 등 新산업통상 전략 필요

3 지방주도 성장, 앵커기업 중심 대규모 민간프로젝트로 전환

- 파격적 규제특례·정책지원을 담은 「메가특구법」 구체화(연내 제정 목표)
- 3대 메가프로젝트 등 1,609조원의 앵커기업 지방투자계획 발표(∼'30)

권역	투자분야(발표일)	주요 투자기업 및 금액
세만금	로봇·수소, AI시티(2월)	현대차(8.9조)
호남권	반도체 성장거점(6월)	삼성(425조) SK(470조) 애플(1조)
충청권	차세대 첨단산업(7월)	삼성(140조) SK하이닉스(100조) 셀트리온(2조) AI DC(150조)
영남권	피지컬AI·우주 거점(7월)	삼성(60조) SK(140조) 한화(55조) 현대차(42조) LG(9.4조) 두산(5.1조)

☞ 산업-지역정책 연계를 통해 앵커기업 지역투자 집중 지원 필요

4 AI 산업혁신 및 주력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가시화

- M.AX(제조 AI 대전환) 가속화, 한국형 AI 산업혁명의 기반 마련
 - 대표 업종 중심, 전국 170개 사업장에 AI 팩토리* 확산
 - * 생산성 향상(30%↑), 불량률 감소(15%↓), 비용절감(20%↓) 등 달성 기대
 - ↳ 예: 반도체 품질검사시간 90% 감소, 이차전지 품질예측 정확도 87% 향상 등
 - 10개 제조회장 로봇 실증 및 분야별 M.AX 선도사업* 진행
 - * (로봇) 핵심부품, (자율선택) 자율운행기술, (반도체)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등 개발
- 석유화학(4월)·철강(6월) 특별법 시행, 선제적 사업재편 승인*
 - * 석화 대산1호(HD-롯데, 2월), 여수1호(YNCC-롯데, 7월)

☞ 반도체 중심 K-자형 성장, 제조업 고용 약화 등에 대응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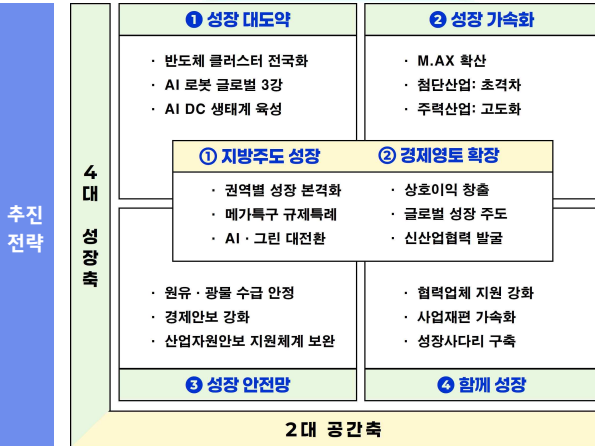
5 고질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및 관행 개선

- 한전-한수원 역량통합, 정부 교섭 기능강화 등 원전수출체계 효율화
 - * 「원전수출체계 효율화방안」을 발표하고, UAE 정산분쟁 관할(영국→한국) 변경(5월)
- 「가짜일 줄이기」로 비효율적 업무관행 개선, 실질성과 도출역량 확보
 - * 대기성 야근, 불필요한 출장 감소 등 직원만족도↑, ▲지속적 조직혁신 기반 마련

II.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

비전 초(超)성장 + 신(新)공간, 대체불가 산업강국

- 목표
- ▶ 3대 메가프로젝트와 M.AX를 新성장동력으로 육성
 - ▶ 권역별 성장엔진으로 지역주도 성장 본격화
 - ▶ 글로벌 산업·경제 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리더십 확보



추진 체계	이행점검	장관 직속 이행·성과 점검 전담조직 즉시 가동
	소통강화	M.AX알라이언스, 산업투자전략회의

- 3 -

III. 핵심 추진과제

1 대도약과 '초(超)성장' 실현 : 4대 성장축

1 3대 메가프로젝트+α 이행 속도전

□ 1,600조원 3대 메가프로젝트: 현정부 임기 내 성과 창출

- 반도체, 피지컬AI(AI로봇),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 투자의 신속 이행을 위해 국가 총력전 전개
- 특히, 투자가 시급한 반도체는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 개최, 산업부 내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밀착 지원

< 3대 메가프로젝트 주요내용 >

구분	분야				금액 (조원)
	반도체 '클러스터 전국화'	AI 로봇 및 피지컬AI 'AI 로봇 세계 3강 도약'	AI 데이터센터 '소부장 등 생태계 조성'	기타	
호남권 (6.30일)	▶ 제2의 생산 거점: 대규모 Fab	▶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조성	▶ AI 데이터센터 : 1GW+α	▶ 차세대 스마트그린, 에너지	896
충청권 (7.2일)	▶ 패키징 거점: 패키징 Fab	-	▶ AI 데이터센터 : 2GW+α	▶ 디스플레이, 바이오 배터리 생태계 강화	392
영남권 (7.3일)	▶ 차세대 반도체 및 소부장 핵심거점	▶ 휴머노이드 양산	▶ AI 데이터센터 : 2GW+α	▶ 제조·국방 등 AX	312

- 기업의 투자 의지에 발맞춰, 대규모 투자의 걸림돌은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·도전적으로 해소

< 예: 진행중인 투자 관련 애로 해소 과제 >

구분	과제 및 대응방향
입지	▶ 국가산단 지정 → 인허가, 보상, 부지확보 등 관련 절차 병렬처리
전력·용수	▶ 전력·용수 공급 → 전력수급기본계획, 국가수도기본계획 등에 반영
교통	▶ 광역교통망 확대 → 고속도로·KTX 확충(예: 광주-영암 아우토반 등)
클러스터	▶ 클러스터 지정 → 국가산단 지정과 동시 진행하여 인프라 지원 강화
인력	▶ 지역인재 유치 → 남부권 반도체 연합공대 사업 추진, 정주여건 개선

- 그 밖에, 3대 메가프로젝트 소부장 '국산화', 반도체·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으로 생태계 혁신 및 경제 효과(청년 일자리, 지역 성장 등) 극대화

* 온디바이스 AI 반도체, 로봇 3대 취약부품(액추에이터, 센서 등), AI DC 핵심 소부장 개발 등

- 4 -

2 M.AX와 산업혁신으로 성장 가속화

M.AX 제조현장에 대대적 AX 적용

- 용접, 조립 등 숙련인력의 제조공정 암묵지를 데이터화('26~)
-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·활용하는 '제조 Data Library'도 구축('27~)
- 제조공정 100개를 AI팩토리로 전환('26)하고, AI·로봇이 자율 판단·운영하는 '폴스택 AI팩토리' 개발('27~'31)
- 'M.AX법'('산업디지털전환법' 개정)으로 제조AX 확산체계 구축('26.下)
- 데이터 수집·관리 등 체계 확립 및 인력·금융 등 기업지원

첨단산업 초격차 기술력으로 글로벌 산업혁신 주도

- 바이오: AI+바이오 융합 기반* 조성으로 혁신제품 개발 가속화
- * 공공 파운드리, 공공 CDMO에 AI 기술 접목으로 국내기업의 후보물질 발굴, 실증 지원
- 배터리: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전주기 국내 생산체계* 고도화
- * 마더팩토리 구축(중부권) + 핵심소재 개발(동남·대경권) + 핵심원료 정제·가공(서남권) 지원
- 디스플레이: 초고해상도·초저전력 OLED 등 비교불가 기술력* 선점
- * 첨단디스플레이연구원 구축('30년 개소), 차세대무기발광다이오드(LED) 실증센터('26.下 착공)

주력산업 AI·로봇 접목으로 제조 주도권 확보

- 자동차: 미래차 시대에 발맞춰, 자동차 부품 생태계 대전환 촉진
- * 부품기업 사업전환, 미래차 3대 핵심기술(자율주행AI, 차량용 반도체, SDV 등) 개발 등 지원
- 조선: 미래 운항·제조 환경변화*에 대비하여 첨단 선박 제조역량 확보
- * 선원 및 제조인력 고령화·감소 → 자율운항·친환경선박 R&D, 자율운영조선소 구축 등 지원
- 방산: 무기체계 AI 적용, 동남권 첨단방산 허브* 중심 생산기반 확대
- *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, 합정 MRO 클러스터(부울경·전남) 지정

- 5 -

3 산업·자원 안보체계 혁신으로 성장 안전망 강화

□ 원유·나프타: 도입 다변화 및 비축 강화로 안전성 제고

- 도입 다변화 인센티브 강화, 장기계약 등 도입방식 다각화

- 다양한 원유(초중질유·경질유) 처리를 위해 생산설비 개선*

* RBO* 초중질·경질유 정제·블렌딩 기술 확보, 설비개선·정제설비 개선으로 초중질유 투입비중 확대

- 비축유 추가 저장을 위한 원유 비축시설 증설 및 국제공동비축* 확대

* 비축시설 증설과 연계, 사우디·UAE 등과 국제공동비축 협력 확대

- 비축유종(콘덴세이트, 나프타 등) 다양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성 제고

□ 광물: 국내개발, 재활용, 국제 협력 등을 통한 전방위 확보

- 공급망 기여도가 높은 핵심광물 프로젝트 중심으로 정부지원 강화*

* 예: ▶ 반도체용 광물 정제·연식설 정적금융, ▶ 희토류 개발지원 ODA·EDCF 협력

- '수출승인 강화 + 수입규제 완화'로 원료 확보, 산업분류체계 개선 (폐기물처리업 → 제조업), R&D*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반 강화

* 희토류 재자원화·대체·저감('27년~), AI 재자원화 자율해체 통합플랫폼 구축('27년~)

- 광업공단 기능을 핵심광물 확보·비축 등 자원안보 관점에서 전면 개편

○ 책임감 있는 사업자 중심 국내 핵심광물 개발을 위해 '광업법' 개정

□ 경제안보: 공급망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 및 기술보호 강화

- 4대 도전기술* 중점 지원, 수요-공급기업 협력으로 차세대 기술 확보

* ① 시장선점형(첨단), ② 시장전환형(고부가), ③ 규제대응형(GX), ④ 공급망확보형(핵심광물)

-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(산기법·외국법)로 기술유출 차단, 손해배상 실질화

○ 우리기업의 수출통제 애로해소를 위한 美·中·EU 등 주요국 협력강화

* 韓·日('26.7월), 韓·中('26.7월), 韓·美('26.3Q), 韓·美('26.下) 등 정부간 수출통제대화 개최

□ 추진체계: 산업자원안보기금·산업안보원(법·무역안보관리원) 신설

- 6 -

4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

- 앵커기업-협력업체 동반성장: **‘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’**
 - 앵커기업^{2.8조원}·정부^{1.8조원}가 함께 미래 성장동력*에 5조원 투자('26~'30)
 - * 예: 로봇 클러스터, 아미노산 생산공장, AI 조선소, OLED 공정혁신 등
 -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(10조원)를 조성하여 협력업체에 투자
- **중소→중견→대기업으로 도약**하는 성장사다리 강화
 - 초기 중견(전체의 85%) 맞춤형 성장추진 지원 및 기업친화형 제도 개선
 - * 초보 중견기업 성장지원 시범사업(컨설팅이행비용 지원 '27~), 대·중소 이분법 제도 정비 등
 - 독자기술 보유 앵커형 중견기업 확충(중견기업 혁신성장 대책 마련, '26.8.)
- **미래 유망·전략 품목 육성**을 통한 수출 기업 다변화
 - K-소비재 수출 3대 애로(유통·마케팅·인증) 집중 해결
 - * (유통) 제품-플랫폼 동반진출, (마케팅) 현지 맞춤형 판로개척, (인증) 해외인증서 국내 발급
 - 방산, 원전, 전력 등 전략 수출 품목에 대규모 금융지원(127조원, ~'30)
 -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한 「KOTRA법」, 「무역보험법」 개정
 - * (KOTRA) 수출지원사업 다각화기업 연속지원 기반 마련 (무보)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확대
- **제조업 내수기반 강화** 및 고부가 전환 **사업제편 가속화**
 - 석화: 과잉설비 축소(△18~25%), 효율성 향상, 고부가·친환경 전환과 함께, 설비감축 후 공급망 안정*, 지역·고용 지원 등 생태계 고도화
 - * 나프타 대체원료(에탄) 도입 핵심품목(의료용 소재 등) 관리방안 마련, 친환경 원료 전환 등
 - 철강: 조선, 재생에너지 등 국내 전후방 기업 간 연계 강화
- **청년이 같이 성장하는 젊은 산업단지 조성**
 - 생활·정주여건 개선 등 매력있는 지역산단을 만들기 위해 문화선도 산단을 신규 조성*하고, 교육·교통 등 청년 성장 바우처도 신설 검토
 - * ('26) 3개소 → ('27) 4개소 / 랜드마크 구축, 노후공장 리뉴얼, 청년 디자인리빙랩 운영

- 7 -

2 글로벌 산업·안보 협력을 주도하는 '경제책략' 구현

- **정상외교 성과**를 토대로, 상대국 성장의 **필수 파트너**로 자리매김

국가	정상외교 성과 확대 방안
미국	對美 전략투자 MOU 이행을 통해 조선, 원자력 등 양국간 전략산업 협력 강화
EU	에너지, 자동차, 방산 등 '한-EU 경쟁력 파트너십' 기반 협력 본격화
중국	서비스·신시장 개척(ETA후속협상 타결), 지방협력 강화(새만금·투자유치 등)
일본	원유·LNG SWAP 등 공급망·핵심광물 안보협력강화
인도	한국기업 전용산단 구축, 전담조직 신설
베트남	원전 개발협력 가속화, 핵심광물 공급망·산업기술인력 양성 협력 확대
몽골	한-몽 CEPA 서명 준비,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, 유통·소비재 진출 지원
- **韓-美 관세협약에 따른 전략적 對美 투자를** 기반으로 **상호이익 실현**
 - 철저한 전략성·상업성 검토를 통해 국익부합 프로젝트 선별
 - 조선협력센터 개소('26.下), 우리기업 미 시장선점 지원
 - 무역법 301조 등 관세조치에도 관세협약 이익균형 유지를 위해 최선
- **중동전쟁 이후, 새로운 산업협력 기회 창출**
 - 중동 탈석유·산업다변화 기조에 대응, 경제협력 프로젝트* 완수 지원 및 사우디·카타르·UAE 등 현지기업과 M.AX 협력 확대
 - * 예: 사우디 현대차 완성차 공장('27년 양산), HD현대 합작 IMI 조선소('27년 가동)
 - 전쟁 후 석유·가스 생산증대 수요 등 고부가 플랜트 수주지원 강화
 - * 고위급 만남 계기 우리 기업 수주 지원, 주요 발주처 대상 先금융 지원(무보 30억불) 등
 - 채굴·핵심일정(인허가 등) 이행, 배원전협력 논의개시 등 원전수출 가속화
 - 국가별 맞춤형 산업협력체계 가동 및 패키지 제공으로 방산수주 확대
- **시장다변화·공급망 기반 강화**를 위해 CPTPP 가입 추진 검토
 - 맥·D·아세안* 등 시장접근 개선 및 K-컨텐츠·소비재 수출 가속화
 - *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 효과, 일본·아세안과는 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효과
- **수출·해외진출에 기여하는 성장 협력모델 구축**
 - UAE·체코·베트남 등 협력 성공모델을 阿·중남미 등 대륙별 거점으로 확산*
 - * 예: 제조센터 구축(우즈베크파라과이), 현지 인력양성(인나·이집트), 핵심광물센터 신설(기차호·인나)
 - '한국판 NTE 보고서' 발간으로 해외 무역장벽·기업애로에 대응

- 9 -

2 지방주도 성장 + 경제영토 확장 : 2대 공간축

1 권역별 성장엔진 중심 지방주도 성장 본격화

- **3대 메가프로젝트**를 포함한 초광역권 전략산업, **‘권역별 성장엔진’ 선정**
 - 메가프로젝트 이행계획, 지역별 여건, 성장 잠재력, 국가 산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역별로 3~4개 산업 선정 추진
- | <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고려사항 >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메가프로젝트 | ② 지방의 산업 여건 |
| ▶ 권역별 메가프로젝트 및 기업 지방투자 | ▶ 산업 집적 수준과 인프라 |
| ▶ 지방정부의 투자 지원 계획 | ▶ 대학·연구소 등 산학연 생태계 |
| ③ 미래 성장잠재력 | ④ 국가 산업전략성 |
| ▶ 지역 내 고용 및 중소기업 파급효과 | ▶ 법정부 정책 적합성 및 연계성 |
| ▶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효과 | ▶ 정책 실현 가능성 및 권역 차별성 |
- 신임 지방정부(민선9기)와의 성장엔진 소통·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, 8월중 중앙·지방정부 협력회의를 통해 최종안 발표 예정
- 권역별 성장엔진 투자는 **‘메가특구’와 ‘7대 패키지’**로 전폭 지원
 -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「메가특구법」 제정, 제1호 메가특구·짜르* 지정
 - * 최고운영책임자: 대통령이 임명, 메가프로젝트 관련 규제특례·인허가 통합조정
 - 재정·금융·세제·제도·인재·기술·인프라 등 범부처 7대 패키지 지원
- | 분야 | 주요 지원 내용 | 분야 | 주요 지원 내용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재정 | 특별보조금 신설, 투자보조금 우대 등 | 금융 | 국민성장펀드·지역성장펀드 투자우대 |
| 세제 | 기업·근로자 대상 지방 우대세제 지원 | 제도 | 인허가 신속처리,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 |
| 인재 | 성장엔진 브랜드·단과대·융합연구원 신설 | 기술 | 지역자율형 R&D, AX사업 우선지원 |
| 인프라 | 문화·보육·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 | | |
- **지역 산업 인프라의 AI 전환(AX), 그린 전환(GX) 지원**
 - 권역별 거점 산단 7개를 'M.AX 클러스터'로 조성(~'30)
 - * 주요 지원내용: 5G특화망·엣지 AIDC 인프라 보급, 산학융합인력양성(MAX 아카데미)
 -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와 파격적 세제, 책정한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신속 추진(RE100 산단 특별법 통과 총력)
- **불법·불량제품 유통차단**: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유통차단
 - KC 미인증, KS 도용, 불법 통관 등으로 불법·불량제품 유통 증가
 - ⇒ 불법·불량제품 감시 확대, KC·KS 등 사후관리 체계 통합(~'26.12.)
- **정량표시상품 관리개선**: 허용오차를 악용한 소비자 기망 방지
 - * 정량표시상품: 질량·부피 등으로 표시되어 포장된 제품(국내시장 약 400조원 추정)
 - 허용오차 제도를 악용, 실제 내용량을 적게 포장하는 경우 다수
 - ⇒ 「계량법」 개정 통해 적합성 검사기준에 허용오차 외 평균량 미달 여부도 포함(~'26.10.), 법사위 의결 '26.7.) 조사 상품수 확대('27~)
- **기술유출·위회수출 근절**: 산업 보호, 민·군 이중용도 제품 관리 강화
 - 기술유출에 대한 미약한 제재로 첨단기술 유출 지속 발생
 - ⇒ 손해배상액 산정 방안, 「산업기술보호법」 개정안 마련(~'26.12.)
 - 무기로 사용가능한 전략물자 수출 검사 한계 및 인식 부족
 - ⇒ 제도악용 기업 등 중점 점검(~'26.12.), 관세청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조사·적발 강화(기초제), 전국 설명회('26. 10회) 등 제도 홍보
- **비영리법인 정비**: 투명성·공익성 확보 위해 실효적 관리감독체계 구축
 - 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 1,024개, 설립후 관리·감독 체계 미흡
 - ⇒ 전수조사후 필요시 설립취소(~'26.12.), 관리·감독규정 제정(~'26.9.)
- **석탄 저탄장 관리강화**: 석탄공기업 관리체계 개선
 - 퇴직직원 제보로 석탄공사의 저탄장 내 석탄경석 다량 혼입 확인*
 - * 저장된 석탄(추정가 638억원)중 경석(제철시 혼합되어 나오는 암석) 비중 60~70% 추정
 - ⇒ 탄질 시추검사 강화(0.4~3m) 및 외부기관 재검증 체계 구축(~'26.12.)

- 10 -

〈 **진짜 성과** 를 위한 **지역·기업·노동계 소통 및 성과관리 강화** 〉

□ **산업부-지역, 산업부-기업·노동계 간 주기적인 소통창구 확립**

- 산업부-지방정부*가 참여하는 정례적 '**지방주도성장 협의체**' 신설(반기)
 - * 통합특별시(전남광주), 특별지방자치단체(충청광역연합), 광역지방단체 등 다양한 주체 참여
- 기업투자·경영 애로 소통창구로 '**산업투자전략회의**' 정례화(반기)
 - * 주요 업종 투자계획·이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과제 관리(해소 시 즉각 통보)
- 업종·지역·중앙단위 **노동단체와도 의제별 위원회*** 등 대화채널 구축
 - * 예: (조선) 노사정 협의체('26.7월-), (석유화학AI 등) 경사노위 업종·의제별 위원회

□ **핵심과제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'영관 직속 이행·성과 점검 전담조직'** 신설

- * (가칭) 정책성과혁신단
- **성과계획적, 신호등 평가** 등을 통해 지연·쟁점 과제 조기 식별
 - * 점검대상 예시: 3대 메가프로젝트, 권역별 성장엔진, 제조 AI 대전환(MAX) 등
- 장관 주재 회의(수시)를 통해 **주요 병목을 신속히 조정**, 조치 결과는 재점검·환류하여 성과 창출 시점까지 철저 관리